

뉴스속뉴스

장보살의 '값진' 삶

30년간 보따리 행상과 폐비닐 수집 등으로 모은 12억원을 94년 동국대에 기증했던 장보살(78세)이 11월25일 별세했다. 장 보살은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30년간 갖은 고생을 하며 모은 전 재산인 12억 원 상당의 임야 4천 평(충남 아산 소재)을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써달라며 선뜻 내놓아 세인을 감동시켰다.

불심이 깊었던 장 보살의 당시 소원은 조그만 절을 지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었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돼 뜻을 이루기 어렵게 되자 장 보살은 평소 다니던 서울 성북동 수월암의 효성 스님을 찾았고, 스님으로부터 동국대를 추천받았고 곧바로 전 재산을 회사했다.

이후 장 보살에게 남은 것은 10평 짜리 연립주택과 외동딸 뿐이었다. 외동딸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은 굴뚝같았지만 혼자 힘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더 큰 유산이라는 생각에 기증결심도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는 외동딸이 출가한 뒤 좁은 집에서 검소한 생활을 이어왔다.

장 보살이 세상을 떠나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동국대에서 부속 병원 건강진단 및 진료, 보약 처방 등의 예우를 해주었지만 장 보살은 그마저도 늘 부담스러워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나쁜 삶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꺼렸던 장 보살. 그런 장 보살은 장례마저도 가족끼리 간소하게 치르라는 유언을 남겼다. 동국대는 장 보살의 귀환 뜻을 기리기 위해 49재를 학교차원에서 봉행하기로 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인재양성을 위해 보시하고 8년 동안 검소하게 살아온 장 보살. 그리고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가난하기를 원했던 무소유의 발원. 하지만 장 보살은 세인들에게 진짜 '부자로 사는 법'을 말해 주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이 가난한가? 장 보살은 보통 사람이 될 수 없는 값진 교훈을 남겼다. 김원우(서재1부 차장)

'군포교 비전21' 마스터플랜 수립

군불교위 정책입안·교육활성화 방안 등 4부문

군불교위원회(위원장 성광)가 중장기 마스터플랜 '군 포교비전 21'을 기획, 군 포교의 새로운 청사진을 내놓았다.

군포교 비전 21은 △군 포교 정책 수립과 추진 △군 사찰 운영 시스템 확립 △교육 활성화 △지원 및 후원 활성화 방안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이 마스터플랜은 과거 주먹구구식의 포교 계획을 벗어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군포교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군 사찰 운영시스템 확립, '군포교 전략화를 위한 군사철 정보화 프로젝트'로 이름 붙여진 이 계획은 군사철운영프로그램을 통한 포교활성화 등 군사철 운영 방안 및 포교전략 수립에 초점

군사철 운영시스템 이용 전역병포교 네트워크

1군법당 1사찰 결연 강화 효율적 지원 모색

을 맞추고 있다. 특히 군불교위원회는 군사철 운영시스템을 이용해 전역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 네트워크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군 사찰 표준기준을 마련하고 건립 절차를 규정화하는 군사철 건립규정 제정도 여기에 포함된다.

군포교 정책 수립과 추진은 군법사들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추진 자료로 이

용하도록 되어 있다. 군포교 발전 5개년계획, 군승 활동 지침 제정, 군포교 상황에 맞는 방법론 개발 등이 구체적인 안으로 추진된다.

교육 활성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군승자원 획득 방안 연구 부분이다. 군불교위원회는 단순한 군승 숫자 불리보다 교육 지침서 및 책자 발간, 법당 군승병 대상 군승 통합 교육 시행, 교육 커리큘럼 연구 등을 통한 질적 강화를

필할 방침이다.

지원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1군법당 1사찰 자매결연 사업을 강화하고, 군포교 관련 단체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 수립을 추진한다.

군포교 비전 21과 관련 박대웅 군승회의 문화홍보국장은 "개신교는 군 선교비전 2020을 통해 한해 90여에 이르는 재정지원을 하는 반면 불교는 2-3억에 불과하다"며 "군포교 비전 21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찰과 불자들의 관심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danu@buddhopia.com

녹원스님, 동국학원 이사장 사임 직무대행에 정대 총무원장 지명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이 이달 20일자로 이사장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사진)

녹원스님은 11월 29일 동국대학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임의사를 밝힌 뒤 "동국대는 지금 불교병원의 순조로운 개원과 후임 총장 선임 등 매우 중요한 시점에 처해있다"며 "나의 사임이 이런 난제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21일부터는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주시길 것을 정

중히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녹원스님은 지난 85년 동국학원 이사장에 선임된 이래 네 차례 연임해 왔으나, 지난 2월 이사회가 재단 관리부실에 따른 책임을 물어 올 12월까지 용퇴할 것을 결의했다.

녹원스님이 사임함에 따라 차기 이사장에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조계종 정대 총무원장이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정대스님의 수락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정대스님이 1월 중순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님은 내년 1월 중순 동국학원 이사회를 다시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직무대행을 때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대스님이 조계종 총원의 겸직금지조항에 따라 총무원장을 사퇴하고 동국학원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조계종은 빠른 시일 내 총무원장 선거를 해야 한다. 김원우 기자

스리랑카 국제불교회의

내년 1월 15-18일

내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스리랑카에서 국제불교회의가 열린다.

스리랑카 전통 수계식과 경전 연구기관 설립 25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국제불교회의는 스리랑카 정부 주최로 한국을 비롯해 일본,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네팔, 싱가포르, 베트남 등 대승불교권 나라들이 참가한다.

불교 업무를 관장하는 스리랑카 정부의 '불교부(Ministry of Buddha Sasana)'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말 조계종에 보내 한국 불교의 참여를 요청했으며, 조계종은 종단의 국제교류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진원스님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회는 '상좌부 불교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Buddha Sasana in Theravada Countries: Issues and the Way Forward)'을 주제로 열리며, 대승불교권 국가들을 초청해 상좌부불교에 대한 견해와 전망을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명우 기자



2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34회 군승의 날 기념법회 및 군불교진흥의 밤 행사에서는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2억원, 대한불교진흥원 서문각 이사장 1억원 등 총 8억여원의 후원금 약정 및 전달이 이뤄졌다. 사진=임민수 기자

대북지원·문화교류 강화

종단협 내년사업 확정, 일승증 제명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조계종 총무원장은 11월 25일 서울 하림각에서 제4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

종단협의회는 민족화해협력의 일환으로 연중 시행되고 있는 대북지원 및 문화교류사업 등을 내년부터 한층 강화하고, 국제포교사 및 외국인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체험도 비중 있게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중일 불

교우호교류대회 등의 기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편지기로 했다.

특히 종단협의회는 지난해 예산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봉축대마알차 운영을 올해 다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종단협의회는 정기회비 및 사업비 등을 채납한 일승증을 회원 종단에서 제명했다. 이에 따라 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은 25개로 줄게 됐다. 김철우 기자

군승의 날 34돌기념·군불교 진흥의 밤

제 34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 및 군불교 진흥의 밤 행사가 11월 26일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 스님, 포교원장 도영 스님, 육해공군 법사 등 60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군불교위원회의 위원장 성광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매년

7만여명의 젊은 불자를 양산하는 군 포교는 북부종단 사병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막중한 사명이 있다"며 군 포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서 군 포교에 공로가 큰 불자들에게 대한 표창 수여 및 군법당 자매결연 증서교환식이 이뤄졌다. 남동우 기자

진솔한 신명수기 보내주세요 제8회 공모

12월 17일까지 편집국 담당자 앞

불교계의 정경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온 현대불교 신명수기 공모가 8회째 열립니다. 가슴에 담아두어 온 감동 깊은 신명수기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신명수기들은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교인연 이야기, 불교입문하며 역경을 이겨낸 수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매 이내
- 당선료: 2003년 1월 1일자 현대불교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중구 동대문로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명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82
- 인터넷 접수: buddhase@buddhopia.com

대상내역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사 시장상)
-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 천태종 총무원장상
 - 관음종 총무원장상 - 총화종 총무원장상
 -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 ※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상금, 부상을 각각 수여하며 응모자 친필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단 한명이라도 최고로 키운다

신입생 전원,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초현대식 기숙사 2인 1실 무료제공
외국학생과 공동생활(5:1 비율)
졸업인증제도 도입(영어+제2외국어)
우수학생 유학지원



www.geumgang.ac.kr

2003학년도 정시("나"군) 신입생 모집요강

■ 모집전공 및 정원
불교문화학부(불교학전공) 20명, 동역학부(영어동역학전공, 일어동역학전공, 중국동역학전공) 60명, 사회과학부(사회복지학전공) 20명

1. 정시모집("나"군)

구분	내 용
모집인원	- 일반전형 정원에 불교문화학부14명, 동역학부42명, 사회과학부14명 - 특별전형 정원외 동역학부(영어) 1명, 사회과학부(영어) 2명, 사회과학부(영어) 2명
지원자격	- 일반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수능 5개 영역 변형표준점수 2등급 이내인 자 - 특별전형: 영어종 특별전형 대상자로 수능 5개 영역 변형표준점수 3등급(동역학부) 또는 4등급(사회과학부) 이내인 자
전형방법	- 일반전형: 수능(40%), 고교성적(40%), 면접(20%) - 특별전형(영어종): 수능(60%), 면접(40%) - 특별전형(사회과학부): 면접(100%)
전형일정	- 입학원서 교부: 2002. 11. 18일 - 12. 13일 - 입학원서 접수: 2002. 12. 19일 - 19일 - 면접고사: 2003. 1. 7일 - 합격자 발표: 2003. 1. 14일

※ 모집인원은 수시모집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할 수 있음

▶ 금강대학교 2003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학부	전공	모집정원	접수현황	경쟁률
불교문화학부	불교학전공	6	29	4.83
동역학부	영어동역학전공 일어동역학전공 중어동역학전공	18	21	1.17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전공	6	32	5.33
계		30	82	2.73

수능(5개 영역 변형표준점수 기준) 2등급 이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